

# 춤·노래로 아픔 달래고 그림으로 뒤틀린 오월 고발

## '5월 광주' 풍성한 문화예술행사

또 다시 '오월'이다. 광주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가 열린다. 극단 '토박이'와 놀이패 '신명'은 올해도 꾸준히 오월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오월전'도 열린다.



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엔'

## 극단 토박이 '청실홍실' '오! 금남식당' 연극작품 2편 무대 올려

###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엔' 마당극...푸른연극마을 '오월의 석류'

#### 연극

지난해 동명동으로 민들레 소극장으로 옮긴 '5월 연극'의 대명사 극단 토박이는 두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1983년 고(故) 박효선이 창단한 '토박이'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이른바 '오월 3부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3부작 중 '청실홍실'이 관객들을 만난다. 19~20일, 26~27일(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6월부터 11월까지의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오후 7시30분) 정기 상연.

박효선 작·연출로 1997년 초연된 '청실홍실'은 단란했던 한 가정의 80년 오월을 겪으며 어떻게 파괴되어가는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둘러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연극은 3명의 자녀를 키우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덕이 하소연하듯, 남편 후배에게 '옛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은 5월 항쟁지도부 기획실장으로 활동하다 도청에서 잡혀 고문을 당한다. 간첩으로 몰리자 자살을 시도, 뇌를 다치고 상무대 영창에 남아 있던 그는 뇌손상으로 정신질환 상태가 돼버린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정신병원에 있고 그녀의 지난 한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임해정, 박정운, 김수현, 강중원, 송은정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2-6280.

'오! 금남식당'(18일 오후 7시 민들레소극장, 22~24일 5·18 기념문화센터)는 주먹밥을 통해 오월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무

겁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80년 오월 광주 사람들이 밥을 짓고 함께 김치를 나눠먹으며 하나가 된 사연을 담아냈다.

무대는 식당 금남관의 후계자를 뽑는 요리 대결 현장이다. 전통 한식 달인 심심해와 퓨전 한식 절대감자 조미료가 김치, 주먹밥 등을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80년 오월 당시 '광주의 주먹밥'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난타 형식과 드라마의 결합으로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마당극 단체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엔'은 올해도 여김없이 관객들을 만난다. 5월 25~26일 오후 3시30분~5시, 5·18기념문화관 민주홀.

5·18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언젠가 봄날엔'은 '오월 광주'를 다룬 작품이지만 주제에 억눌리지 않는 유쾌한 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항쟁의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극복을 창작탈구, 소리, 춤 등으로 형상화한 마당극이다. 주인공 박조금 역을 맡은 배우 지정남의 연기는 압권이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김호주·김은숙·정이형·김혜선 등도 극의 활력을 더한다. 문의 062-527-7295.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오월의 석류'를 무대에 올린다. 18일~5월 4일(평일 오후 7시45분, 토·일 오후 5시18분) 연바람씨어터.

2013년 거창국제연극제 희곡 공모 대상작(작가 양수근)인 '오월의 석류'는 5·1·8의 상처가 웅이저



토박이의 연극 '오! 금남식당'

럼 박혀 있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여전히 진행중인 1980년 광주를 조망해본 작품이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다리 부상을 입고 이후 생선 장사를 하며 삼남매를 키운 엄마, 당시 총을 든 외아들 순철, 그리고 순심과 순영 자매 등 가족들의 이야기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펼쳐진다. 석류가 빨갭게 익어가는 늦가을, 순심은 진정엄마 제사상을 보기 위해 분주하고 금남로가 내려다보이는 옥상에서 그녀가 태어난던 무렵 아버지가 심은 석류를 만다. 이당금, 윤미란, 오성완·이새로미씨 등이 출연한다.

'애꾸눈 광대'는 18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나며 8월 23일

까지 매일 넷째 주 화·수요일에 상설공연된다.

지난 2013년 초연을 시작으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애꾸눈 광대'는 5·18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버전은 80년 5월을 겪은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슬픈 인생사를 녹여낸 게 특징이다.

희곡작가 김원민씨가 각색하고 연출은 이형원씨가 맡았다. 서사극 형식의 연극으로 효과음악을 가미한 드라마 중심의 '창작극'을 삽입했다.

이지현씨를 비롯해 이현기, 정이형, 노희설, 정경아, 강민영, 양선영씨 등 지역 대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시

매년 5월 5·18기념전시를 열고 있는 (사)광주민중미술인협회는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29회 오월전 '비틀린 세상, 억눌린 일상-왜곡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32명이 참여해 5·18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과 세월호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등 5·18사적지와 목포 신항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고 과거와



박철우 작 '얼룩진 태극기'

## 광주민중미술인협회 오월전 '비틀린 세상'

### 24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최병진 24일까지 'SO-SO한 오월' 개인전

현재의 비교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한쪽벽을 가득 채운 가로 4.5m·세로 3m 대형 작품이 눈에 띈다. 박철우 작가가 제작한 '얼룩진 태극기'다. 어두운 색채 물감을 태극문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캔버스에 칠해, 얼룩진 민주주의를 표현했다.

'마지막 간판장이' 박태규 작가가 그린 작품 '숨'(가로 90cm·세로 1.8m)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묘자를 배경으로 노란색 방독면을 쓴 사람을 등장시켜 숨막히는 현실을 풍자한다.

직설적인 서예작품도 있다. 박종화 작가는 '적폐청산'을, 허달용 작가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작품을 전시한다.

오월전에 참여한 최병진 작가는 24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SO-SO한 오월'(so-so May)을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일상 속 특별한 기억을 사진을 통해 재구성하는 최 작가의 2번째 개인전으로, 5·18을 특유의 감성으로 녹여낸 사진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5·18을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 아닌 현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는 시공간으로 본다.

문의 062-410-66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태규 작 '숨'

## 음악

##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 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5월의 필링' 공연

### '몰다우'·'님을 위한 행진곡' 등 들려줘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오는 20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5월의 필링'을 주제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 나라의 민족주의 작곡가인 체코의 스메타나,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루마니아의 이바노비치, 대한민국 광주의 김종률 작곡가 등의 작품을 연주, 시대가 주는 어려움을 음악으로 극복한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 레퍼토리는 스메타나의 '몰다우',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보테니시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5월의 노래' 등이다.

정월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김종률(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작곡가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조선태교수중창단(박중, 사회만, 김윤신, 김철수)이 광주여성필하모니와 협연한다.

또 더블베이스 연주자 괄효원(카이로스앙상블 수석단원)씨가 함께 한다. 공연티켓 전석 5000원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 매매

### □ 10층 중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상무지구 중심상업내

### □ 보 500만 월 44만

### ▶ 매가 8천300만

062-511-7800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굼 / 주차 완비

### ▶ 매가 1억 (용 2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 전대 정문 2분. 광주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갈굼)

### ▶ 매가 2억4천만 (용 1억6,500만)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서구 화정동 (4층 원룸) 토 93평, 건 156평 화정역 1분 월 수익 630만 예상 ▶ 감정가 7억8,400만 → 최저가 5억5천



- 동구 대인동 (4층 상가 주택) 토 128평, 건 250평 월세 약 300만 가능 (4층 주택) ▶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8억8천



- 남구 서동 (상가 주택) 토 78평, 건 14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월수익 300만 예상 ▶ 감정가 5억2천 → 5억2천



- 서구 치평동 (아파트 상가) 토 68평, 건 87평 상무지구 아파트 상가 현 스킨 골프장 운영중 ▶ 감정가 570억 → 최저가 200억

##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남구 백운동 (상가 주택) 토 65평, 건 145평 남구 백운교차로 3분 월세 200만 예상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1억7천
3. 동구 화동 (아파트 상가) 토 10평, 건 20평 학동 중심지역 1분/대단위 아파트 밀집 상가 ▶ 감정가 7천9백 → 최저가 5천5백
4. 광산구 장덕동(7층 중 2층 상가) 토 12평,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 노블랜드 후문 (코너)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5. 동구 산수동 (원룸) 토 83평, 건 145평 월세 350만 예상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 ① 경매 기초반

-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 교육등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10-7384-7800

010-2699-5300